

# “환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감동 병원” 암·뇌혈관 질환 등 건보평가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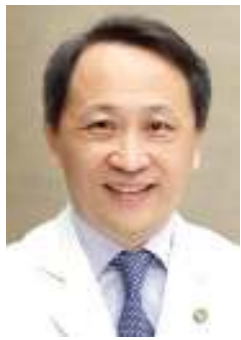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장관상 건국대병원

건국대학교병원(병원장 황대용·사진)은 1931년 구료제민(救療濟民)과 인술보국(仁術報國)의 뜻을 담아 설립한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5년 8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료진과 대한민국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활동으로 의료계의 새로운 강자로 도약하고 있다.

건국대병원은 2005년 새 병원 개원 이후 진료 분야별로 손꼽히는 의료진을 영입하고 기존 의료진을 꾸준히 양성해 국내에서 명의가 가장 많이 모인 병원 중 하나가 됐다. 분야별 학회 회장과 이사장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의료진이 15명에 이른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 특화 센터로는 여러 과가 함께 진료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갖춘 양정현 센터장(겸 의료원장)의 유방암센터, 철단 수술인 하이브리드 수술을 하고 재발 전이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황대용 센터장(겸 병원장)의 대장암센터 등이 있다. 여성암 국제학회를 이끌고 있는 강순범 센터장의 여성부인종양센터, 국제학술 활동을 통해 세계 의학계 중심에 선 유병철 간암센터장, 소화기병센터의 심찬섭 교수, 소아심장수술 대가인 서동만 심장혈관센터장 등도 특화 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 치매 분야 한설희 교수, 뇌종양 분야 이영조 교수, 혈액암 분야 이흥기 교수, 폐암 분야 이계영 교수, 만성폐쇄성 폐질환 분야 유광하 교수, 스포츠의학 분야 정홍근 교수(족관절)와 김진구 교수(수관절) 등도 대표 명의로 꼽힌다.

건국대병원은 새 병원 개원 7년 만인 2012년 중증치료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질환 등 고난도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적정성 평가에서 암,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20개 항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 2010년 국제진료소문을 연 뒤 외국인 환자도 꾸준히 늘었다. 국내에서 러시아인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의료기관이다.

환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1년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병원 인증을 받았다. 2013년 12월에는 건강증진병원 의장병원이 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시니어친화병원’을 선언해 고령 환자가 편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연구개발(R&D)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 맞춤형 진료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환자가 편안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 로비에서 정오의 음악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지금까지 2600회의 연주회가 열렸고 참석 관객만 3만명이 넘는다.

연구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병원장 직속 임상의학연구소를 세우고 대규모 임상시험과 국제과제를 수행해왔다. 해외 우수 의료기관과 공동 연구를 하며 별도 연구 시설을 갖춘 연구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암과 치매 분야의 강점을 토대로 관련 분야 신약개발에 나선 다국적 제약사와 공동 연구도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글로벌임상시험센터인 ARC와 공동 연구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윤익진 건국대병원 혈관외과 교수팀은 돼지 심장을 원숭이에 이식해 국내 최장 생존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냈다.

건국대병원 슬로건은 ‘비욘드 더 베스트, 더 그레이트(Beyond the BEST, the GREAT)’다. 정량적 평가를 넘어 환자 개개인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황대용 건국대병원 병원장은 “병원이 환자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 가겠다”며 “환자나 보호자가 피부로 느끼는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기자 bluesky@hankyung.com

# 유방암·부인종양... 여성 특화 진료 탁월 러시아·중동 등 60개국서 환자 찾아와



## 보건복지부장관상 이대목동병원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사진)은 1887년 설립된 국내 최초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이 모태다. 국내 유일의 여자의과 대학 부속병원으로 여성 교육과 진료, 연구를 선도해왔다. 환자 중심의 차별화한 병원 혁신 활동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응급실 모델 개발사업’에 이어 지난해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돼 양질의 중증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방암 갑상샘암 자궁암 난소암 등 여성암을 비롯해 장기이식, 심혈관질환, 뇌졸중 등 고난도 중증 질환 수술 및 치료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이대목동병원의 특화센터인 유방암·갑상선암센터와 부인종양센터는 대학병원 최초로 암 진단 후 1주일 안에 수술하고 첫 방문 당일 진료와 검사를 한 장소에서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 진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 최초로 여성암 환자 전용 레이디병동을 갖추고 여성 건강 검진을 남성과 분리한 여성건강센터를 운영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여성암 환자를 위한 차별화한 진료 시스템과 여성 친화적 진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대목동병원은 장기이식센터, 심뇌



혈관센터, 뇌졸중센터, 간센터/췌장·담도센터, 방광암/인공방광센터, 하지중증외상센터, 말초신경수술센터 등 난치성 질환 및 고난도 중증 질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 전문화된 진료를 하고 분야별 의료진이 협력 진료해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고 있다.

환자 중심 통합진료 시스템을 적용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곳 중 하나가 간센터/췌장·담도센터다. 간질환 관련 여러 분야 전문의가 유기적으로 통합 진료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와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진다. 환자별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고 전문 진료도 제공한다.

장기이식 전문 코디네이터가 환자 맞춤형 관리를 해 수술 전 보존 치료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환자를 세심하게 보살핀다. 최근에는 암환자성재활센터, 재발성부인암센터 등 암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를 잇달아 열며 암 환자 수술 후 삶의 질 개선과 재발 암 치료에도 힘쓰고 있다.

이 같은 센터 중심 특성과 전략을 통해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매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획득 등을 통해 해외 고객도 믿고 찾는 병원으로 바뀌고 있다. 병원은 중국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등의 병원과 환자 의뢰, 진료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고 의료진 연수, 해외 국가별 현지 홍보 마케팅 강화 등에 신경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중국 러시아 중동 미국 유럽 멕시코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등 60여개 나라에서 이대목동병원을 찾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차별화된 고객중심 진료 시스템은 ‘토요일 진료 전면 실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메르스 사태로 진료 실적 악화라는 위기 상황에 놓이자 대학병원 최초로 전 진료과의 모든 교수가 토요일에 진료와 수술에 참여하고 모든 검사를 하는 토요 진료를 시작했다. 평일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이 병원을 찾으며 올해 3-8월 외래환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77%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연구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화융합의학연구원을 통해 세계 최초로 편도선 유래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줄기세포 재생, 여성암 조기 예측 진단, 맞춤 치료법 개발, 조산 예방과 예측 등 다양한 분야 연구를 통해 의료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보구여관 설립 정신인 사랑과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이화해의의료봉사단을 구성해 의료봉사 활동도 한다.

이지현기자 bluesky@hankyung.com



## MEDICAL KOREA AWARDS 2016 2016 메디컬코리아대상

주최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 한경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CrystalGenomic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보령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i-sens**